

더 백암

2018 백암소식 21호

The Baekam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건강한 정신, 함께하는 병원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진료과목

조현병(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 신경증, 갱년기장애, 불면증, 우울증, 알코올중독
지적장애(정신지체장애), 기질성 뇌 증후군, 약물 및 환각제 남용

진료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공휴일은 휴진합니다.

Mission

고객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

Vision

전문적
진료로
신뢰받는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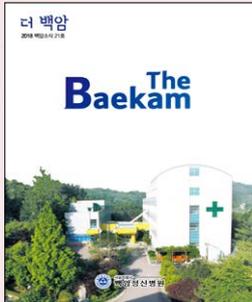
고객에게
인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창의와
열정이 있는
행복한
병원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병원

contents

2018년 백암소식 21호



1장 백암의 소식

(NEWS OF THE BAEKAM)

- 6 2주기 인증 획득
- 8 백암의 10대 뉴스
- 10 해외연수 - 베트남을 다녀와서
- 12 QI 경진대회
- 14 부서소개 - 간호팀
- 16 월별행사
- 18 재활프로그램

2장 백암에 의한 소식

(NEWS BY THE BAEKAM)

- 22 인권의 날 행사
- 24 바뀐 정신건강증진법
- 26 쉬어가기
- 30 NVC 비폭력대화
- 32 정신건강칼럼
- 34 들여다보기 : 가을야유회
- 36 원외취약계층 지원활동

3장 백암을 위한 소식

(NEWS FOR THE BAEKAM)

- 38 자원봉사자 수기 : 도예요법 / 무료치과진료
- 40 직원단합대회
- 42 송년대축제
- 44 내 마음의 이야기 - 백일장, 사생대회 수상작
- 46 수련을 마치며
- 48 아름다운 백암인들
- 50 자원봉사자 및 후원회





좋은 아침

- 나태주

내가 세상한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눈물이 날 것이다

내가 세상한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더욱 눈물이 날 것이다

아침에 문득 받은 전화 한 통
핸드폰 문자 메시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약속한다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말해보자

1장

백암의 소식

NEWS OF THE BAEKAM





보건복지부 2주기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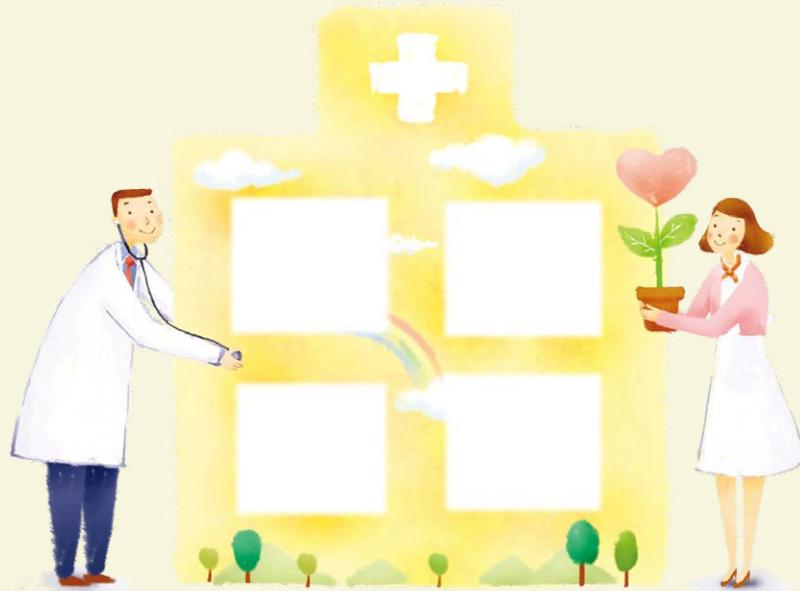
서울시 백암정신병원은 정신의료기관 중 1차로 보건복지부 2주기 정신의료기관 인증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2주기 정신의료기관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서 2주기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1주기 인증 보다 인증기준을 강화, 인증조사결과 및 인증등급 판정 기준도 상향 조정하여 인증 조사 4개영역, 12개장, 29개 범주, 51개 기준, 197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인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백암정신병원은 1주기와 마찬가지로 2주기 역시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1차로 인증조사를 신청하여 2017년 5월24일부터 5월26일까지 3일간 인증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백암정신병원 임직원들은 1주기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 결과로 인증을 획득했듯이 2주기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도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보건복지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2주기 인증획득으로 백암정신병원은 또 다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으로 그 우수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잠깐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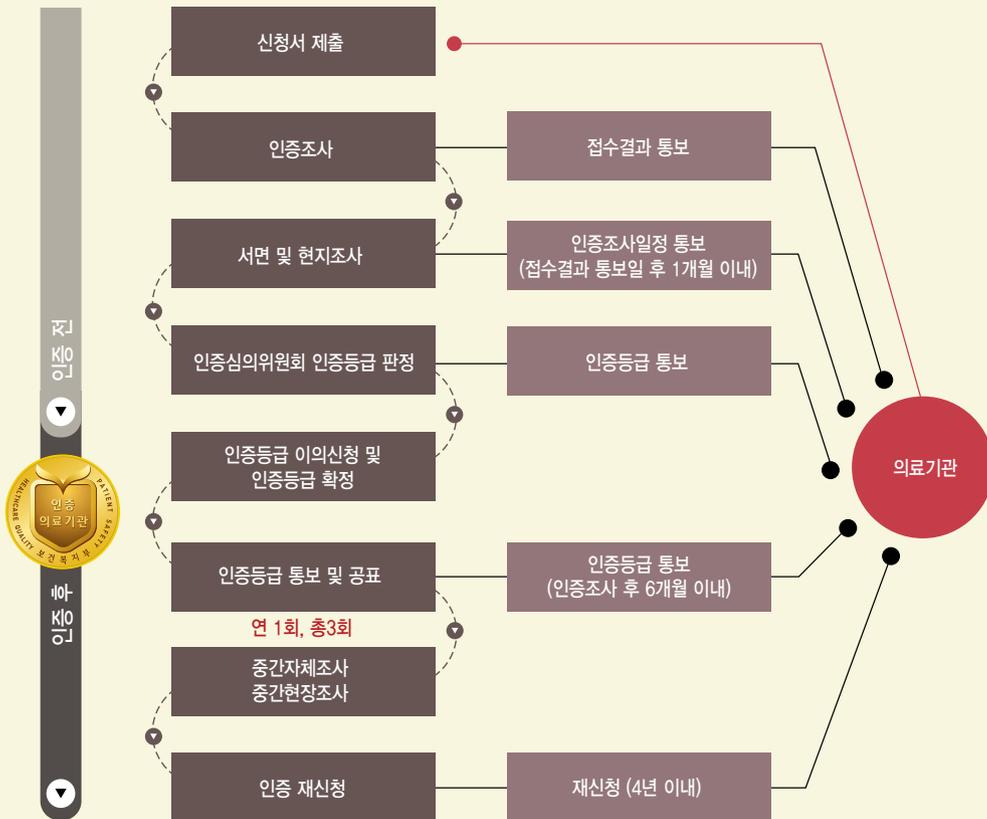
의료기관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증 판정 - 해당 의료기관이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보장과 적정수준이 질을 달성하였음을 의미)

인증기준은 의료법 제58조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의 1항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권리와 안전
-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 환자만족도
-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관리 및 운영

인증조사 진행과정



백암정신병원 10대 뉴스

2017년도 백암정신병원의 핫 이슈 10가지를 알아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2호
공포일 2016.05.29 | 시행 일 2017.05.30 | 현시행법령



1 2주기 인증 획득

정신병원으로서 처음으로 2주기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병원 발전과 직원의 자부심 등을 향상시킴.



2 서울시 병원평가 9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서울시 병원 평가는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평가영역은 병원정책 및 거버넌스, 공공성, 경영효율성, 의료의 질 향상으로 구분하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함. 우리병원은 2009년~2017년까지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3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2017년 5월30일 새로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본원에서는 그에 적합하게 운영 실시함.



4 제1회 정신건강의 날 병원장 복지부장관상 수상

국민 정신건강과 복지 향상에 공헌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에서 정신병원으로서 유일하게 백암정신병원 박수용 병원장이 수상하였음.



5 병동 화장실 리모델링 & 면회실 신축

병동 화장실 개선공사를 통해 환우가 병동에서 청결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 및 환우가 면회 시 좀 더 편리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면회실을 신축함.



6 부서장 workshop 실시

2017년 12월18일 제주도에서 모든 부서장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보냄으로서 병원 발전을 위한 귀한 시간이 되었음.



7 민간협력물품지원 실시

유케이특판, 서로가치, 유니레버 3곳 업체로부터 민간기업 물품협력 사업으로 생활용품 3,000여점을 후원받아 병원 원내외 취약계층 환우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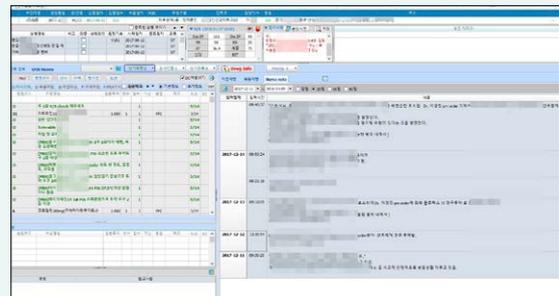
8 원외 기숙사 개설

본원 여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원외 기숙사를 개설하여 사용 중임.



9 3차 의료기관(단국대병원) 협력체계 구축

본원에서 처음으로 3차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영역을 확대 실시함.



10 EMR 시스템 정착

EMR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전자서명도 같이 부여받아 사용하였으나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의무기록 전산화 확립함.



해외연수 후기

베트남 호이안 구 시가지를 다녀와서

조현우 진료과장



베트남 다낭을 방문해서 느낀 첫인상은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요즘 핫한 관광명소임을 증명하듯이 계속해서 호텔이나 여러 건물들을 짓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베트남의 옛 전통을 고스란히 보존하여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호이안 구시가지'는 베트남의 속살을 느끼기 더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과거 유명한 베트남의 무역항이었다고 하는 '호이안 구시가지'에는 일본인 마을, 중국인 마을 등의 옛날 거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통 야시장에는 우리나라의 벼룩시장처럼 값싸고 소박한 물건들이 많아서 발길을 멈추게 하였고, 베트남 전통 간식은 혀를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특히 해질 무렵에 켜지는 수많은 연등들과 시가지를 흐르는 투본강의 야경은 감탄이 절로 날만큼 운치가 있었습니다.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여행기간 내내 날씨가 화창하더니, 야간에 투본강을 건너는 작은 보트에 타자마자 소나기가 쏟아져 흠뻑 젖었던 기억은 여행기간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다른 곳에선 잘 볼 수 없었던 서양인들이 '호이안 구시가지'에서 유독 많이 관찰되었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는 유명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인위적인 개발이나 리모델링 보다는 문화유산을 옛 것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훨씬 관광객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면서 역동적이고 정적인 매력을 모두 느끼게 해 주었던 베트남 여행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좋은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사장님과 백암 가족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베트남 광주리 배를 타고 이태석 총무주임

태어나서 처음 해외여행이기에 더욱 크게 심장고동소리가 품에서 울렸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은 후 4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 베트남에 도착하자 도로에 수많은 오토바이가 무질서하게 운행하는데 너무 신기하였습니다. 도로 교통을 잘 지키면 되려 사고로 이어진다는 가이드의 말에 이상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첫째날 오후 우리는 특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광주리 같은 베트남 특유의 배에 노를 젓는 사람이 우리 일행 2명씩을 태우고 아주수 즐비한 강위에서 유람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인은 배를 타는 동안 갖가지 묘기를

부리기도 하여 흥미를 배가시켰습니다. 나는 생전 처음타보는 광주리 배에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베트남의 풍습과 살아가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한동안의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 여행지에 도착할 때마다 가이드 설명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는 기분으로 수확하였으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베트남을 여행해야지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여 마지막 밤을 그냥 보낼 수 없어 같이 간 직원과 해변에 모여 그동안 즐거웠던 기억에 남을 이야기를 하며 베트남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베트남의 작은 유럽 “반아힐”

정태호 사회사업팀장

베트남을 도착하자마자 이국적인 느낌을 받았다. 한국은 지금 한겨울인 설경을 목격할 수 있었으나 베트남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산천초목이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첫날을 무사히 보낸 우리는 둘째날 조식 후 버스에 몸을 싣고 반아산 관광에 나섰다. 1.5시간 버스를 탄 후 하차하여 반아산 앞에서 약20여분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도착하자 다양한 오락시설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100여 년 전에 건축된 천주교 성당에서는 예비신혼부부들이 웨딩사진을 촬영하고 있어 행운을 빌어주었다. Guide에 의하면 베트남은 세계열방들의 침략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화 하였을 때 반아산 정상에 자신들의 그 많은 별장을 베트남인들을 강제 동원하여 건축했다고 한다. 사실 그 높은 산 정상에 이 많은 별



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생명이 희생당했을까? 또한 강대국이라고 해서 약소국을 식민지화하여 많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은 약육강식의 현장 같았다. 그러나 프랑스가 물러가고 그 별장들은 현재 베트남의 명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에 나는 강한 개인과 국가가 되어야 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뒤로한 채 반아산 관광을 마치고 하산 케이블카에 몸을 실었다. 이후에도 우리는 다양한 관광을 하여 많은 역사를 공부하게 되었다. 이번 베트남 관광을 알차고 보람 있는 관광이었으며 여행의 기회를 허락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베트남 영흥사 관람수기

변성준 보호주임

이번 여행을 계기로 덕에 대한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덕을 쌓으면 비가 내리다가도 갠 것이며
 덕을 쌓으면 길거리에서 원숭이도 볼 수 있으며
 덕을 쌓으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으며
 덕을 쌓으면 어떠한 경쟁에서도 이길 것이며
 덕을 쌓으면 지옥 같은 곳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여행의 여정에서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덕을 많이 쌓아서 이보다 더 큰일을 이루겠습니다.



베트남 하이반 고개 관람기

안은숙 책임간호사



우리 일행은 다낭시를 떠나 BBC 자동차 프로그램의 진행자 제러미클라크슨이 '디저트에 장식된 완벽한 리본과 같은 아름다움이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중의 하나' 라고 칭했던 해안도로를 따라 하이반 고개에 도착했다. 하이반 고개는 다낭시와 투아티엔후에성의 경계선에 있으며 베트남을 남과 북으로 구분하는 가장 높고 긴 고갯길이다. 고개의 가장 높은 곳의 유적의 성문에게 '가장 훌륭한 성문'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하이반 고개는 오랫동안 북부와 중앙부 사이를 이동하고자 하는 군대에게 심각한 장벽으로 전쟁중 수많은 총탄 자국들이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다. 싸늘하고 습하며 안개가 자욱하여 전쟁 때 죽은 수많은 젊은 원혼들이 구름으로 떠돌고 있다고 한다는 설을 믿을 만큼 음산한 곳이기도 했다. 우리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가족여행 같다고 했다 3박4일 일정동안 편한 휴식을 하는 시간으로 개인적으로는 아이들 입시와 짬이 없는 병원 근무로 지쳐있던 내게, 이런 시간을 주신 분께 감사의 마음이 절로 나는 고마운 여행이었다.

2017년 QI 경진대회

백암정신병원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10월24일(화) 백암정신병원 강당에서 '2017년 제9차 QI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백암정신병원 QI 경진대회는 ▲환자안전향상 ▲2주기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및 유지 ▲의료의 질 향상 및 고객만족 증대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라는 2017년 질 향상 활동 목표 아래 총 5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응원전과 함께 한 해 동안 직원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돋보인 다양한 활동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질의 응답을 통한 공유와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예의 대상에는 '표준화된 간호중재 개발을 통한 표준화된 간호중재 수행율 향상'을 주제로 활동한 나이트게일의 후예 팀이 선정되었고 최우수상에는 '적응유연성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직원 적응유연성 향상'활동을 발표한 산울림 팀이, 우수상에는 '감성 touch를 통한 격리 강박 적응 감소율 향상'을 주제로 발표한 격리의 품격 팀이, 마지막 응원상은 칼 군무를 선보인 웰컴 투 용천골팀이 수상하였습니다.

2주기 인증획득을 한 병원으로써 우리병원은 지속적인 QI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의료의 질 향상 도모 및 업무수준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7년 QI 경진대회 대상수상

나이팅게일의 후예팀

표준화된 간호중재 개발을 통한 표준화된 간호중재 수행율 향상

표준화된 간호중재 개발을 통한 표준화된 간호중재 수행율 향상

표준화된 간호중재
과학적 근거나 임상적 판단에 따른 간호를 계획한 대로 실행에 옮김

문제개요

- 무형의 서비스 - 형태가 없는 무형의 서비스
- 표준화된 간호중재 무재로 인한 혼란
- 간호중재 성과 측정의 어려움
- 표준화된 간호중재 개발의 필요성 대두

활동계획

PDCA PLAN

- 표준화된 간호중재 개발
- 표준화된 간호중재 필요성 인식
- 정기적 교육
- 모니터링

기대효과(목표) 2017년 9월 말까지 표준화된 간호중재 수행율을 90%p 향상시킨다

핵심지표 표준화된 간호중재 수행율

활동내용

PDCA DO

- 간호중재 개발
개발된 간호중재 체계화
- 간호중재 필요성 인식 개선활동
표준화된 간호중재 적용 수행율에 따른 보상
- 정기적 교육
표준화된 간호중재 적용 교육
- 모니터링
표준화된 간호중재 적용 모니터링

활동결과

PDCA CHECK

1) 자가모니터링 결과

표준화된 정신과 간호중재 개발 및 적용	상황 별 표준화된 간호중재 적용
표준화된 임상 간호중재 개발 및 적용	표준화된 간호중재 개발을 통한 표준화된 간호중재 수행율 향상
필요 시 처방 간호중재 개발 및 적용	
표준화된 간호중재를 통한 업무 수행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 향상	
간호업무 적용 및 수행 시 도움	
업무일관성 유지 및 업무오류 감소	
개발된 간호중재에 대한 만족감 향상	

2) 간호중재 적용 및 수행을 변화

7월(목표)	8월(목표)	9월(목표)
71	80	100
90	95	95
79	88	93

목표 대비 3%p 초과 달성!!!

사후관리

PDCA ACT

- 자가적도 설문지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표준화된 간호중재 수행율 93%유지
- 다양한 간호중재 상황 문제 발생시 표준화된 간호중재 개발
- 상황별 요구되는 미적용 사례 간호중재 수정 및 교육

간호팀에서는 2016년 진행된 QI 활동(표준화된 업무(EMR)매뉴얼 제작을 통한 표준화된 업무 수행을 향상)과의 연속성 및 높은 수준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CQI활동을 진행하고, 무형의 서비스라는 특징을 가진 간호 서비스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간호중재 개발을 계획하여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 결과 15명(100%)의 표준화된 간호중재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주제로 선정하여 QI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시적인 성과 이외에도 간호 업무 시 존재하고 있던 여러 방면의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스스로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었다며 우승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나이팅게일의 후예!

대한민국 정신병원의 선두주자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의 꽃!**
간호팀을 소개합니다.
간호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간호서비스의 차별화 및 간호사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간호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간호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간호팀!



1. 직무교육 - 응급상황 시뮬레이션 교육 실시

group별 교육 및 매뉴얼 제작, 응급상황(질식, 심장마비, hanging 등)에 따른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간호사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전문적인 간호제공 및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상담간호활동

찾아가는 상담간호 활동을 통해 보호자들에게 환우의 병동생활 문제, 신체적 건강상태 및 영양상태 변화, 간식비 문제 등에 대해 상담간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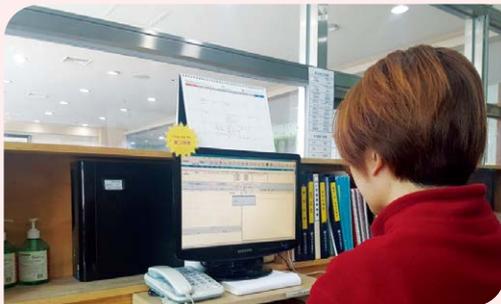
3. 플러스 알파 너싱(+α Nursing) 활동

이달의 플러스 알파 너싱 병동과제를 선정하여 간호사별 개인과제를 선정하고 월 1건의 플러스 알파 너싱을 수행함으로써 환우들에게 플러스 알파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표준화된 간호 서비스 제공

2016년도 QI활동을 통해 표준화된 EMR 매뉴얼을 개발하여 의료기관 인증획득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업무 수행을 유지하고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 2017년 QI 활동으로 표준화된 간호중재를 개발하여 수행함으로써 간호오류를 감소시키고 안전하고 표준화된 간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곱하고, 행복을 나누는 월별행사

내부행사

환우분들이 직접 다양한 창작활동 및 무대공연을 함으로써
성취감 및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신년음악회



아버지날 행사



백일장 및 사생대회



백암한마당축제



송년대축제



백암영화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외부행사

병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긍정적 활동 및 지지의 경험을 통해 역량강화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진행됩니다.



삶의 질 향상 사업(가을 야외회)



용인여성합창단공연



신년음악회

문화공연

다양한 문화공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병동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진행됩니다.



백암병원 힐링 음악회



투게 더, 함께 더 재활프로그램

더 펼치자!

더 뛰자!

더 건강해지는 재활프로그램

백암정신병원은 환우분들에게 많은 경험, 희망, 건강을 더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리재활 프로그램

증상 및 기능 회복을 위한 사회기술프로그램, 알코올회복프로그램, 정서관리 프로그램, 인지재활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됩니다.



유쾌! 상쾌! 통쾌!(스트레스관리훈련)



삼삼오오 (대인관계기술훈련)



영상으로보는 세상(자기표현훈련)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은행, 관공서, 대중교통, 마트, 박물관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회복귀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사회문화에 발맞추어 가기 위한 적응능력을 높이는 훈련이 진행됩니다.



문화체험



음식점 이용



대형마트 이용

여가지원 프로그램

환우 욕구에 기반한 병동 별 특화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여가, 취미 활동을 통해 긴장감 및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크게 라디오를 켜고



도예요법



힐링아트



웃음치료



진선미(뷰티)

건강관리 프로그램

환우의 연령, 성별, 신체기능을 고려하여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도록 진행됩니다.



헬스케어



체육요법



생활체육

찾아가는 프로그램

재활동기가 낮은 환우들을 위해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병동으로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가요톱10



생각나누기



시사상식



백암 시네마



우리가 눈발이라면

-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뼛쭈뼛 훑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돌는
새살이 되자.

제 2장

백암에 의한 소식

NEWS BY THE BAEKAM



인권의 봄날 (인권의 날 행사)



봄 햇살이 따사로운 4월 4일

백암정신병원에서는 제 6회 인권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인권의 봄날도 따뜻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인권의 봄날'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한 이날 행사는 인권 백일장을 비롯하여 인권 특, 즉석 퀴즈 대회를 실시하여 인권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날의 행사는 입원 환우 분들과 더불어 직원들도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인권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소중하다는 인권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다.

입원 환우와 함께한 제 6회 인권의 날 행사



인권 특



인권 O,X 퀴즈



인권 백일장

제 6회 인권의 날 ‘인권의 봄날’ 백일장 수상작

인권 2행시

3병동 유0하

인 :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권 : 권리를 알고 실천 하는데서 올 것이다.

인권 4행시

개방병동 김0곤

인 : 인간이 가져야 할
권 : 권리와 의무가
봄 : 봄날 같이 따뜻한
날 :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방병동 한0엽

인 : 인간에게는 누구나 행복의 자유가 있습니다.
권 : 권위와 권력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봄 : 봄에 꽃이 만발 하듯이
날 : 날마다 행복의 향기를 느껴보십시오.



직원들과 함께한 인권 O,X 퀴즈

새로바뀐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이 17년 5월 30일자로 새로 개정되어 시행령이 발행되었습니다. 기존 정신보건법을 부분개정한 것이 아니라 전면개정되어 정신보건법은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식명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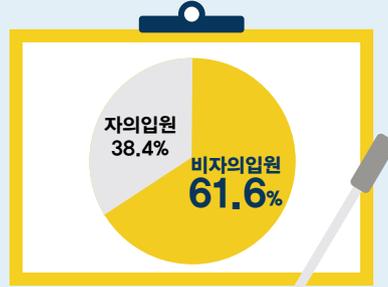
현 정신건강복지법은 지난 1995년 12월 30일에 ‘정신보건법’으로 제정되어 1996년 12월 31일에 시행되었고, 1997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된 법률이 1998년 4월 1일 시행된 이후 일부 개정되며 시행되어 왔습니다. 2016년 5월 29일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시행되며 새로운 법 적용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 이유는 과거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적인 요소는 큰 반면,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근거는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국가보다 자의입원률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동의와 전문의 1인의 진단만 있으면 자기와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없이 비자의입원이 가능했습니다.

정신질환 입원환자 10명 중 약 6명은 비자의 입원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입원율



국가별
비자의입원률
비교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비자의입원을 결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UN인권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우리나라의 비자의입원 조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문의 2인이상인 입원치료 필요성과 자신과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한 경우, 독립적인 기구의 결정을 거쳐 비자의입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롭게 바뀐 정신건강복지법이란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 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을 뜻합니다.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적 요소는 줄어들고 복지 지원을 위한 근거는 대폭 강화됩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첫 번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자의입원에 있어 행정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도 비자의입원이 가능했으나 법이 시행되면 소속이 다른 전문의의 진단이 추가로 있어야 비자의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비자의입원이 결정되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국립병원 등에 소속된 독립된 기구에서 비자의입원 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질환자의 차별해소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정신질환자의 법적의미를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하여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각종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의 안전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하는 제도가 보완되었는데 법 시행으로 바뀐 것은 첫 번째로 행정입원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행정입원이란 정신질환자를 시장 등의 행정책임자가 입원시키는 제도인데 기존에는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만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관도 행정입원을 요청해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외래치료명령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퇴원한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면,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의입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자의입원의 환자의 경우에도 자신과 타인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의가 72시간 동안 정신질환자의 퇴원을 막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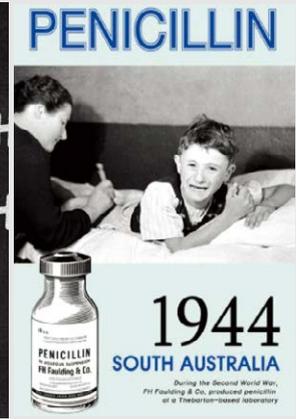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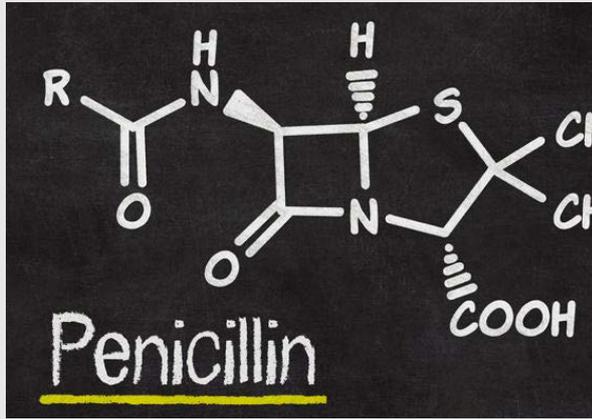
하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현재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행하는데 있어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국가입·퇴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빈번한 오류로 인해 입원과 퇴원, 입원연장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에 너무 치우쳐 정부가 공조하는 교차진단과 이중 진단등에 인력문제와 실질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당사자나 가족들이 제때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법이 시행된 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일선 병원 및 시설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이라는 이름도 사실 사회적 편견이 있는 이름이라 꺼려지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가지 않는 구조로 폐쇄성이 짙어 불법입원들이 문제가 되기에 지금의 개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마음에 병이 생겨 입원하고 치료받는 것이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감기처럼 여길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http://soullove58.tistory.com/332> 마음_심리 이야기
<http://blog.naver.com/ph001144?Redirect=Log&logNo=221090650674>
몸짱기사취재수첩
※비자의입원 : 강제입원을 바꾸어 표기함

실수가 인류를 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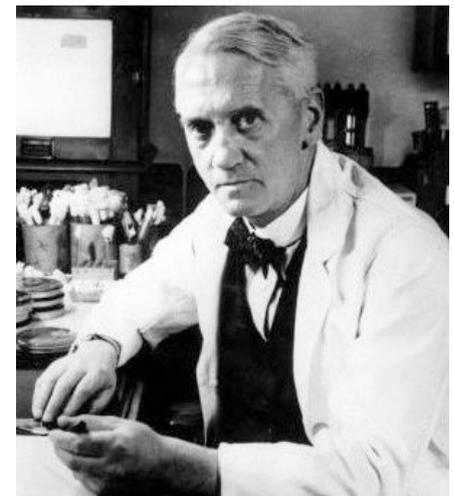
페니실린은 인류 최초로 만든 항생제입니다.
 병원균을 죽여 건강한 세포가 굶거나 썩는 것을 방지하지요.
 전염병과 상처 감염을 막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살린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류를 구한 약품, 페니실린은 실수로 탄생되었습니다.
 영국의 의사였던 알렉산더 플레밍은 실험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플레밍의 연구실 아래층에는 곰팡이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아래층의 곰팡이가 날아서 배양접시 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다른균이나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접시의 뚜껑을 닫아야 했었지만 플레밍은 실수로 접시 뚜껑을 닫는 것을 깜빡했고 그 결과 푸른곰팡이가 자라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푸른곰팡이 주변은 깨끗했습니다. 세균들이 푸른곰팡이 때문에 죽어버린 겁니다. 플레밍은 곰팡이가 세균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연구 끝에 곰팡이에게서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질에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페니실린은 인류의 평균수명을 늘리고 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플레밍은 그냥 지나칠수 있었던 실수를 되짚어 연구한 덕에 페니실린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플레밍처럼 실수한 것에 자책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한 이유와 그리고 실수해서 얻은 결과를 잘 관찰한다면 인류를 구한 것처럼 성공보다 더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재미있는 실수로 인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몇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1. 포스트잇

직장과 학교 여러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포스트잇! 1968년 3M에서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다가 실수로, 붙였다가 쉽게 떼어지는 약한 접착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접착체는 자중에 자국을 남기지 않는 북마크로 사용하면서 포스트잇이 발명되었습니다. 3M에서 실패작이라고 좌절만 했었다면 지금의 편리하게 사용되는 포스트잇이 등장하였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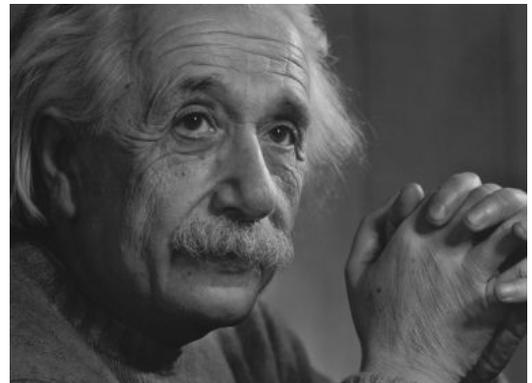
2. 시리얼

아침식사대용으로 먹는 시리얼! 시리얼 또한 실수로 발명되었습니다. 캐물고 사의 사장인 '윌 캐물고'는 밀가루 반죽을 망치는 실수를 해버립니다. 굳은 반죽을 버리기 가까워서 롤러에 넣고 돌렸더니 굳은 조각이 쏟아져 나왔고 이것을 튀기자 지금의 '씨리얼'이 발명 되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아침을 책임지는 시리얼 또한 실패로 탄생된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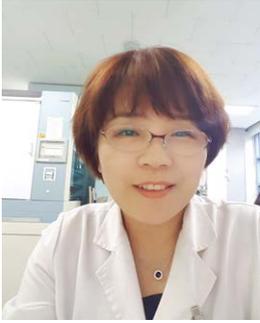


3. 나일론

스타킹의 원료인 20세기 최근의 섬유 발명품 나일론! 화학회사에서 합성물질을 연구하던 윌리스 캐러더스, 연구한 물질의 활용법을 몰라 고민하던 중, 그의 조수가 시험관을 세척하며 열을 가하자 합성물질에서 실크 같은 실들이 나오게 되었고 마침 그걸 본 캐러더스가 인공화학섬유인 나일론을 개발하게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러한 발명들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닌, 어떠한 실수로 지나치지 않은 통찰력과 기회를 얻기까지의 노력과 끈기 덕분입니다. 실수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약제팀장 김현경

마음을 만지는 대화 ~ 비폭력 대화

어떤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게된 환우가 이런질문을 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지옥같은 곳에 오게 된거예요?”
여기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답할수있다

- (질문하기) : “무슨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분석하기) : “경계성 인격장애’처럼 행동하시네요”
- (적극정 경청):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지옥같은 곳에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신 건가요?”
- (조언하기): “좀 진정하고 약을 드셔야겠어요”
- (바로잡기): “여기는 지옥이 아니예요, 여기는 정신과 병동입니다”
- (위로하기): “아무 잘못도 안하셨어요, 곧 기분이 나아질거예요”
- (교육하기): “지금이 당신 문제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해 볼 기회예요”
- (공감하기): “화가 나셨어요?”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신 건가요?”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공감으로 대하면 상대방이 방어하는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적다는 것이다.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점은 처음에는 상대방의 감정표현이 더욱 격해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감을 계속하면 진정하는 효과가 있다.

-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비폭력대화' 중에서 -

비폭력대화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2009년 캐서린 한 선생님이 번역하신 ‘비폭력대화’을 보았을 때였다. 그 당시에는 신촌에 센터가 있었는데 좀 멀기도 하고 마음만 먹고 있다가 몇 년후, 때마침 겨울방학이었던 고등학생 작은아이가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흔쾌히 함께 참석하기로 하여 NVC 레벨1수업을 매주 3시간씩 18시간 6주 동안 참석 하였다. 큰 기대 없이 참석했던 강의인데, 아이는 아이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주고 받았던 기쁨과 상처를 만나고 어루만지며 집에 돌아 갈 때는 엄마와 딸이 너무 충만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야말로 그 해 겨울은 따뜻했었다. 그 후로 집근처에서 열리는 비폭력대화 연습모임에 참석하면서 레벨2와 레벨3를 이수하며 나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를 나의 내면에서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 기쁨의 시간을 나누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개의 시간과 지면을 허락하심에 감사한 마음 뿐이다.



1. 비폭력대화란 NVC란?

NVC는 Nonviolent communication의 약자로 비폭력대화라 번역된다. 때로는 연민의 대화(Compassionate Communication)로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폭력은 간디가 사용한 것과 같은 뜻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폭력이 가라앉고 자연스러운 본성인 연



심리학자 마샬로젠버그



민으로 돌아간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혀 폭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말할 때도 종종 본의 아니게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 NVC는 우리가 날 때부터 지닌 연민이 우리나라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화방법 (말하기와 듣기)이다. NVC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대화방법이다. NVC는 마셜 로젠버그 박사에 의해 고안되었다.

그는 조용할 날이 없고 반 유대적인 미국의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충돌의 해결에 대해 예리한 관심과 그가 접했던 폭력에 대한 평화로운 대안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화를 개발했다.

NVC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방법을 재구성하도록 이끌어준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내적인 대화도 경청함으로써 존중, 배려와 공감하는 마음을 기르게 되므로 진심으로 서로 주고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2. NVC 모델 : NVC의 네 가지 요소

첫째, 관찰 (observation)

어떤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관찰한다.

관찰에 평가를 섞으면 듣는 사람은 이것을 비판으로 듣게 되고, 우리가 하는 말에 저항감을 느끼기 쉽다.

예) 관찰 - "내 말이 끝나기 전에 네가 전화를 끊었을 때..."

평가 - "네가 무례하게 행동할 때..."

둘째, 느낌 (feeling)

그 행동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끼는가를 말한다. 흔히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다

예)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나의 해석을 드러내는 말이다.

셋째, 필요/욕구 (n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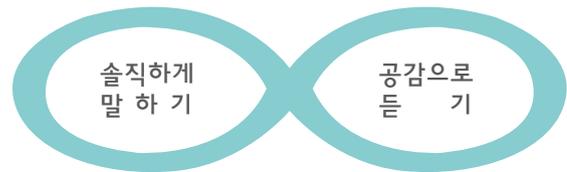
자신이 포착한 느낌이 내면의 어떤 욕구와 연결되는지를 말한다.

예) "네가 음식을 남기면 엄마는 실망한다." → "엄마는 네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에 네가 음식을 남기면 실망한다."

넷째, 요청/부탁 (request)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3. NVC의 두 가지 축면



위의 네 가지 요소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위의 네 가지 요소를 공감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우면서 대화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자연스럽게 연민이 생겨날 것이다. 곧 나는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무엇을 부탁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며,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무엇을 부탁하는가.

이상으로 간략하게 비폭력대화(NVC)의 소개의 글을 마치며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나를 둘러싼 주변과의 소통에서 지금은 나 자신과의 소통의 시간이 많아진다. 나 자신의 느낌 알아 차리고 나와 공감하는 시간속에서 더 많은 자유와 평화를 만나고 있다.

참고도서 : 비폭력대화 - Marshall B. Rosenberg Ph.D 지음 -
의료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비폭력 대화 (우리병원대화는 건강한가?)
- Melanie Sears 지음 -



진료부장 정우균

주요우울장애

얼마 전 한 인터넷신문에서 (2017.11.05. 굿모닝충청) - “나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편견을 깬 그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호주의 한 총리가 자신이 우울증 환자임을 밝혔고 이에 대해 현지 언론이, 우울증에 대해 숨길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해야 할 병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다고 호평했다는 기사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자신이 공황장애를 겪었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얘기함으로써 공황장애에 대한 인식전환에 큰 기여를 한 일이다. 이렇듯 공황장애나 우울장애와 같은 정신질환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대체로 우울장애는 다양한 모습의 우울 감정과 의욕과 인지의 장애, 신체적 문제들을 야기하며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 질병이며, 유병률이 높고, 인류 사회에 큰 부담을 주는 장애이며, 심하면 자살에 이르게 하는 장애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다. 우울장애 범주 내에서 가장 고전적인 질환인 주요우울장애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망률과 유병률을 같이 고려하여 발표한 질병의 전반적 부담에 의하면, 특히 주요우울장애는 1990년도에는 모든 질환 중 4위이었으나, 2020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이어 2위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주요우울장애는 성인에서 흔한 정신과적 장애로서, 평생유병률은 남성에서

5~12%이며 여성에서 10~25%로 높다. 우울증이 여성에 많은 이유로 호르몬의 차이, 출산경험,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학습된 무력감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다.

우울장애는 유전 등 생물학적 요인, 정신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이 유발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신체질환이나 약물에 의해서 유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부분적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통합된 궁극적 설명은 아직 없다. 우울증은 1회성 삽화뿐만 나타날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재발되기도 한다. 1회의 삽화는 대개 3~6개월간 지속된다. 재발형이라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두 삽화 사이에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우울증 삽화는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무가치감이나 죄의식, 사고, 집중력, 의사결정의 장애,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사고, 식욕감소, 불면증, 이차극성, 에너지 감소, 피곤 등이 특징이다.

우울한 기분은 정서적으로 슬픈 느낌을 갖는 것이다. 울 것 같은 느낌, 무망감, 낙



답, 느낌이 없음 등으로도 나타난다. 사람에 따라 기분보다 통증 같은 신체증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는 분노, 짜증, 까탈스러움, 남 탓하기, 이자극성 등으로도 나타나는데, 특히 소아나 청소년에서 그러하다. 혼자만 있으려 한다.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은, 아무것에도 재미가 없고 관심 없음, 과거 취미에 대한 흥미 상실, 자신감 없음, 삶에 대한 의욕 없음 등으로 나타난다. 피곤해하고 매사에 짐이 되는 듯 여기며 일하기를 싫어하고, 평소 해오던 작업을 포기하려고 한다. 성적 관심이나 욕구도 감소한다. 식욕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기도 한다. 특정 음식, 예를 들어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체중감소나 증가가 나타난다.

수면장애는 불면증이나 과면증으로 나타난다. 대개 중간에 깨는 불면증이나 새벽에 일찍 깨는 불면증이 많다. 과면증의 경우 밤낮으로 졸린다.

흔히 우울증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심하고 오후가 되어 해가 저물어 떨어지는 일중변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신운동장애는 이자극성으로 나타난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손을 움직거리고 비비고 한다. 이를 초조성 우울이라 하는데, 지속적인 불안, 걱정, 긴장, 장애의 위해에 대한 느낌과 어쩔 줄 몰라 하는 걱정과 초조감, 좌불안석 등이 동반된 우울증을 말한다.

정신운동 지연으로도 나타나는데, 이는 말과 움직임, 생각 등이 적고 느리게 진행된다. 이를 지연성 우울이라 하는데 때때로 이 환자들은 자신이 아무런 느낌도 없다고 말한다. 심할 때는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에너지가 줄고 피곤하다. 가만히 있어도 또는 사소한 일을 해도 금방 피곤해진다. 평소 해오던 작업의 능률이 감소한다.

사고는 몇몇 주제에만 국한한다. 미래의 실패에 대한 불안, 거절, 보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무슨 일든 쉽게 결정을 못하고 우유부단한 경우가 많다. 자존심과 자기 신뢰는 감소되고, 개인의 가치에 대해 부정적이며 사소한 실패에 대해 죄의식을 가진다. 반복생각(반추)한다. 사소한 일상적인 일도 자신의 결함 때문으로 생각하거나 과도한 책임을 느낀다. 무가치감이나 죄의식은 망상적 수준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사고진행에 역제가 나타나 말은 느리고 대답은 간단하고 대개 단음절이며 목소리가 낮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때

우 느리고,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압축하여 대답한다.

사고, 집중력, 의사결정에도 장애가 나타나는데, 주의산만하고 기억장애가 있다. 인지능력을 요하는 작업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 사고는 몇몇 주제에만 국한되고, 소아, 청소년의 경우 학교성적이 떨어진다. 노인의 경우 소위 가성치매가 나타날 수 있다.

신체증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잠깐의 노력에도 심한 피로감이 흔히 나타난다. 소화장애, 변비, 가슴 답답함, 두통, 쇠약상태 등을 호소한다. 건강염려증이 생기고 자신이 신체장애 때문에 우울하다고 믿는다. 한국인들은 우울증 때 신체증상을 보다 많이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우울증이 성인에서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임이 입증되었다.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사고 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하려는 구체적 계획 등이 나타난다. 무력감, 고립무원감, 분노와 공격의 감정, 죄책감, 자기징벌의 욕구 또는 망상 등의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하는 수가 있다. 자살은 우울증에서 회복될 때 가장 빈번히 일어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폭력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은 조증 때보다 우울증 때 더 흔하다. 우울증을 증오나 공격적 성향의 억압 때문으로 본다면, 이 억압이 어느 순간 약화되는 경우 폭력이 드러난다고 본다. 우울증에 걸린 여자 환자의 경우가 남자보다 살인을 저지르는 수가 많다. 대개 희생자는 가족이거나 평소 사랑하던 인물이다. 살인을 자살충동의 한 연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자살이 자신에 대한 공격성의 발휘라면, 살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장으로 여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병리는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가 자식과 함께 동반자살을 한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주요우울장애의 개념, 역학, 원인, 임상양상(증상) 등에 알아보았는데, 서두에서 언급한대로 주요우울장애는 비교적 드물지 않는 질환으로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이나 주위사람들에게 우울한 기분 등으로 걱정이 되거나 물어올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바로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다면 다른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민성길(2015). 최신정신의학.(제 6판). 일조각.



2017년도 가을야유회 “가을 소풍”



2017년 9월 15일 가을 야유회
“가을소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천시 모가면에 위치한 이천 농업테마파크에서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맛있는 식사와 간식, 쌀 문화 전시관 관람으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쌀 문화전시회



레크레이션



시상식



원외취약계층 진료지원활동



청소년자살예방캠페인

10대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살과 관련한 예방교육을 지역사회 중학교에 실시함으로써 공공병원으로서의 지역사회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당사업을 실시함



편견해소사업 (찾아가는 의료지원, 편견해소캠페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자아 정체감이 손상되고, 가족들에게는 불안, 죄책감, 분노 등이 작용하여 질병의 치료가 저해 됨으로서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되어 철회를 경험하게 됨. 또한 사회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의 정상적인 삶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정신적·심리적 영향을 초래하게 됨. 이에 백암면 내 행사, 용인 공용시외버스터미널, 용인 내 대학교 축제등에 참여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젊은층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정신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해당사업을 실시함



장애인입소시설 진료지원사업 (작은평화의 집)

작은 평화의 집 입소자들의 경우 대부분 정신박약 등으로 인해 타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기능이 되지 않으며, 기관에서 생활 함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검진을 제공 받을 만한 여력이 되지 못함. 이에 본원에서는 입소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진, 정신건강상담, 감염병 예방교육등을 실시하여 의료접근성이 낮은 입소자들에게 무료진료 활동을 수행함



미혼모입소시설 진료지원사업 (생명의 집)

가정폭력 여성, 소외받고 있는 기혼 및 미혼 여성은 물론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가정폭력 여성들을 지지하다 보니 심리적으로 많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미혼모입소시설에 대한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병원으로서의 건강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사업을 실시함



행복한 노년사업

지역사회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기초건강검진등의 활동 등을 통하여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당사업을 실시함





우리집

- 이해인

우리집이라는 말에선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온다

“우리집에 놀러 오세요!”라는 말은
음악처럼 즐겁다

멀리 밖에 나와
우리집을 바라보면
잠시 낮설다가
오래 그리운 마음

가족들과 함께한 웃음과 눈물
서로 못마땅해서 언성을 높이던
부끄러운 순간까지 그리워
눈물 글썽이는 마음

그래서 고향이 되나 보다

헤어지고 싶다가도
헤어지고 나면
금방 보고 싶은 사람들

주고받은 상처를
서로 다시 위로하며
그래, 그래 고개 끄덕이다
따뜻한 눈길로 하나 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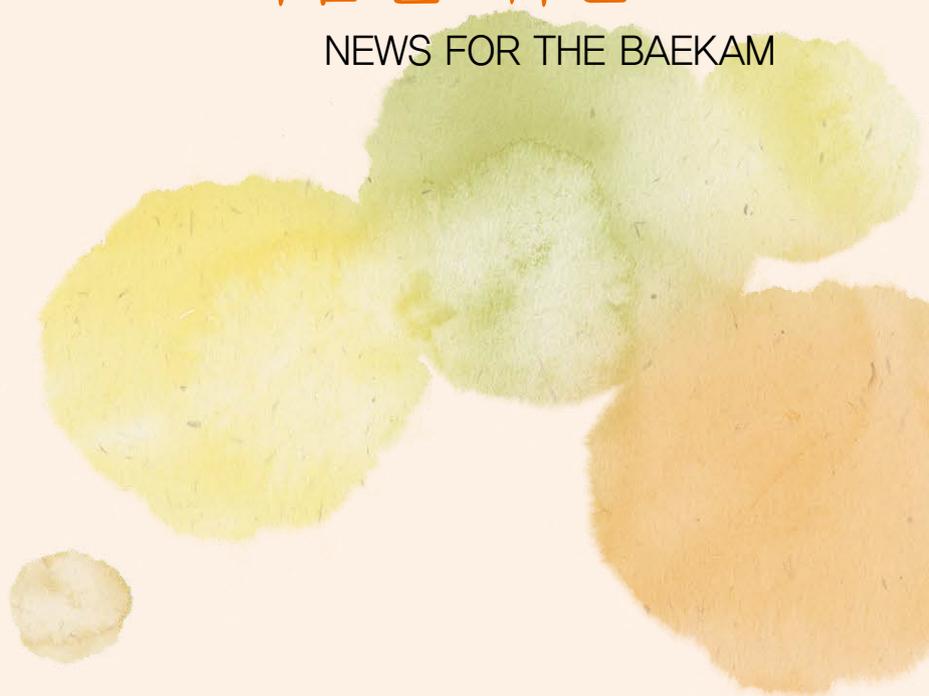
이런 사람들이
언제라도 문을 열어 반기는
우리집 우리집

우리집이라는 말에선
늘 장작 타는 냄새가 난다
고마움 가득한 송진 향기가 난다

제 3장

백암을 위한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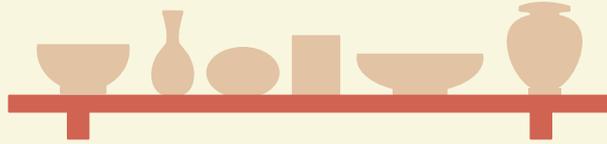
NEWS FOR THE BAEKAM





도예요법 봉사

자원봉사자 이해영



백암, 축령, 고양 정신병원은 서울시 병원들입니다. 15년 전에 고양정신병원에서 미술치료를 봉사하던 그때. 그 때는 가을 체육대회를 3개 병원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 때부터 백암병원하고 인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백암 지역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기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2016년 2월에 도자기 작업장 건축을 계획하며 이천, 여주, 원주 등 땅을 보러 다니던 중 우연히 백암에 오게 되었습니다. 큰 길에서 큰 규모의 요양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요양원이라고만 생각하고 무심히 넘겼습니다. 계획한 작업장 건축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2월에 구입한 땅에 10월에 건축 허가가 떨어지고 11월에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하며 계절도 겨울로 접어들니 마음속에 황량함이 밀려왔습니다. 건축 과정에서도 날씨 문제로 준공을 낼 수도 없고 시간이 흘러서 봄이 다가왔습니다. 겨우 내 집짓는 일에 진이 빠지고 나니 봄에 우울해지고 심리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도예 작업장에 가장 중요한 가마 문제가 생겨서 있던 가마를 처분하고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울증이 생기면서 감정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자신이 힘들어지니 주위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지지 않았 습니다. 요양원에 병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15년 전 열정과는 다른 상황과 틀에 박힌 시간을 낸다는 게 부담스러워 조금씩 미루다 백암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흔쾌히 사회사업팀장님이 병원을 방문해 보라고 제안을 하셔서 백암병원과 인연을 맺은 지 7개월이 지났네요. 처음에 어색했던 환자분들과는 다르게 지금은 환자분들과 친밀감도 생기고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눈 마주치며 웃을 수 있어 힘든 봉사 가운데 보람이 있습니다. 늘 봉사는 제 자신이 하지만 혜택은 제가 보는 듯 합니다. 수업을 마치고 환자분들이 즐거워하시면 보람이라는 혜택은 제 몫이니까요



무료치과진료 봉사

이규영 선생님



저는 백암정신병원 환우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한 달에 두번씩 치과 진료료 자원 봉사를 하고 있는 이규영 치과의사입니다. 평생의 업으로 삼았던 치과 개업에서 은퇴한 후, 경험을 살려 봉사할 곳을 찾던 중 백암정신병원에서 환우 여러분을 돕게 된지도 벌써 다섯해가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병원이 낯설기도 하고 환우분들과의 의사 소통에도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한 해 두해 진료가 이어지면서 저도 이젠 백암정신병원과 많이 친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환우들의 구강 건강이 처음 진료를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여 많이 좋아져가는 것을 볼 때마다, 봉사자로서 마음의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신병원의 특성상 장기 입원하고 계신

환우들이 많아, 이제는 구강 상태 뿐만 아니라 얼굴도 익숙해진 환우들도 많아졌습니다. 오가기에 가깝지는 않은 봉사길이지만, 저를 알아보고 반겨주는 환우분들을 생각하면 한 달에 두번 있는 치과 진료 봉사날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백암정신병원은 조비산 자락의 탁 트인 전경과 맑은 공기가 일품이라, 도시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이곳으로 진료 봉사 나오는 것이 때로는 소풍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래도록 백암정신병원 환우들의 구강 건강을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봉사의 기회를 주신 이사장님 이하 모든 백암정신병원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한마음 페스티벌

직원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직원 단합대회 '한마음 페스티벌'을 2017년 10월 27일미사리 조정 경기장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일정은 10km 트레킹, 점심식사, 레크레이션 순입니다. 이사장님의 훈시를 시작으로 황동욱 계장의 주도하에 몸풀기 체조를 하였습니다. 10km 트레킹 시작 전 직원들은 각 조별로 모여 각자 가지고온 간식을 먹고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10km 트레킹 시작!

직원들 모두 10km 트레킹을 하는 동안 식사준비, 레크레이션 준비 등 뒤에서 힘 써준 준비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트레킹 또한 막상 멀다고 생각했던 길이 조별로 담소를 나누면서 걷다보니 어느새 종착점!!



모두가 도착하고 가장 기다렸던 점심시간!! 기대이상의 밥차의 등장으로 너무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꿀맛같은 점심식사 후 MC 장민혁사원, MC 이길아사원의 주도하에 레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제 정해 릴레이 단어 이어가기



각 게임을 할 때마다 각 조에 등수를 매겨 점수를 채점하여 최종 우승한 팀에게는 선물을 증정하였습니다.
1등은! 3조!
이렇게 하루를 서로 소통하고 그간 업무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원무팀 장민혁 사원

레크레이션 준비하면서 부담과 많은 걱정을 하였지만 백암직원분들의 웃음과 재밌었다는 말씀들로 위로받아 너무 뜻 깊고 백암정신병원의 소속감을 느끼게 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료팀 이경린 과장

함께하는 우리, 하나되는 백암인의 화합된 힘을 느꼈습니다. 준비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료팀 조현우 과장

즐겁고 유쾌한 단합대회였습니다. 행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동의 순간이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간호팀 곽유진 수간호사

신선하고 유쾌한 진행, 즐겁고 행복한 참여, 하나됨에 감동받은 하루였습니다.

보호팀 김숙화 계장

저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너무 좋아 보이고 다음 기회에는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간호팀 오수영 수간호사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돋보이는 최고의 단합대회였습니다. 단합대회를 위해 준비해준 담당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호팀 윤상원 사원

전과 달리 게임위주의 단합대회여서 직원들과 많이 어울릴 수 있었고 도시락을 싸오지 않아 부담도 없었고 출장 뷔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좋았습니다.



송년 대축제

알차고 뜻깊었던 2017년을 보내면서 환우분들과 직원이 하나가 되는 따뜻한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서로에게 사랑과 기쁨이 되었고, 해가 거듭할수록 발전해가는 환우분들의 재능은 힘찬 새해를 맞이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1부 흥이 넘치는 공연으로 축제장은 뜨거운 열정과 무르익은 분위기를 느낄수 있었습니다.



3병동 나야나 (댄스)



2병동 꽃봉오리 예술단 (합창)



1병동 우리도 한다! 싱크로나이즈



2병동 꽃봉오리 예술단 (합창)



3병동 나야나 (댄스)



개방병동 지중해 (합창) 무조건 (댄스)



찬조공연

바이올린 공연, 가곡, 색소폰 공연, 노래 공연, 댄스 등의 찬조공연으로 따뜻한 송년대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2부 뮤지컬, 연극, 댄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방병동 지중해 (합창) 무조건 (댄스)



3병동 성녀와 나무꾼



2병동 시운드 오브 뮤직



1병동 우리도 한때 싱크로나이즈



2병동 시운드 오브 뮤직



3병동 성녀와 나무꾼

백일장 및 사상대회 수상작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는 소공원에서

“**봄, 꿈 그리고 새로운 도전**” 이라는 주제로 백일장 및 사상대회가 열렸습니다.

봄의 색깔을 입은 벚나무처럼 환우분들의 작품에서 나는 봄의 향이 우리들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대상 개방병동 한0엽 “봄”

4월의 하늘아래 자줏빛 사랑을 꿈꾸는
당신은 자목련을 닮았습니다.
바람의 노래에 맞추어 춤추는 당신은
참사랑입니다.
봄이면 언제나 행복의 향기를 느끼는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봄이면 당신에게서 배우는 언어는
바로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봄이면 아픔이 밀려와도
웃을 수 있는 당신이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봄을 기다리며 기약했던
참 기쁨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봄이면 당신의 눈앞에
언제나 행복의 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봄이면 우리가 함께 불렀던
지워지지 않는 따스하고 영원한 우리의 사랑 노래
그 노래 속의 주인공인 당신의 이름은
바로 희망입니다.

금상 화목병동 최0수 “봄”

잎사귀에 꽃이 하나 둘 영근다.
노랑, 초록, 분홍색 색색들이 아름답다.
내일이면 노랑꽃, 초록꽃, 분홍꽃 모두 모여서
꽃을 피우면 어찌 아름답다 아닐 할 수 있을까?
꽃을 위해서 몸을 움츠리고 있는 모습이
봄을 기다리듯이 항상 준비중이다.



금상 화목병동 유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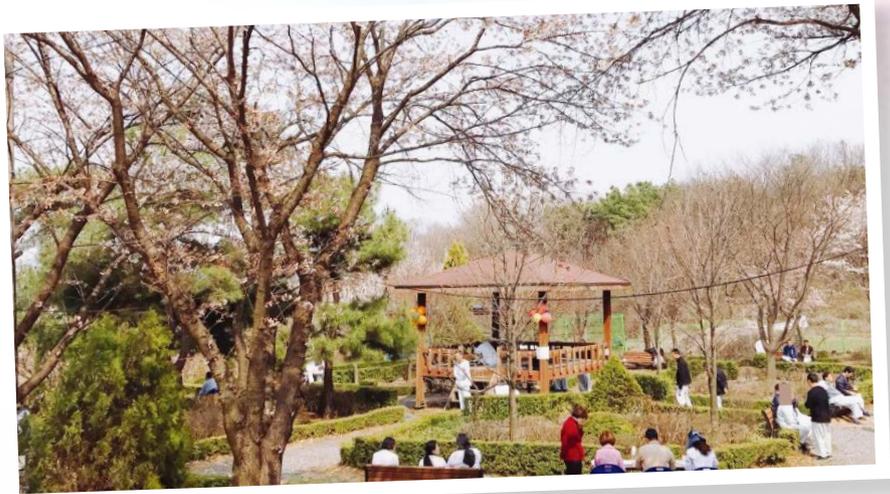
은상 화목병동 양이승



동상 사랑병동 임소숙



대상 사랑병동 김소숙



은상 사랑병동 장오성 "음악이 좋구좋구"

음악이 흐르는 야외 공원에서
 벚꽃이 만발하고 자목련도 한껏 핀
 봄을 맞이 하며 푸르른 하늘아래
 싱그럽고 향기로운 꽃내음이
 봄 소식을 전해준다.
 공원의 진돗개도 봄을 맞이해
 봄 소풍을 갔나 보다

동상 개방병동 강오권 "봄"

봄이 오도다
 장군처럼 한손에 검을 들고
 겨울 얼음을 깨고 부순다
 이제 봄은 따스한 봄을
 온천지에 질러 버린다
 이제 여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봄은 천지에 없고
 가을과의 싸움을 위해
 어디에서 싸움을 준비한다.
 아아
 봄과의 추억이 그리워진다.



‘정신건강임상수련’ 을 통한 꿈을 모아서

2017년도 백암정신병원에서 9기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도전, 1년 동안의 임상수련과정을 마치면서 또 다른 「Do Dream」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사회복지사 김민경

안녕하십니까? 백암정신병원 9기 정신건강수련 사회복지사 김민경입니다.

‘서류 전형만이라도 통과했으면 좋겠다.’ 라는 심정으로 수련지원서를 쓰던 제가 지금은 어느덧 수련과정을 끝마치는 시점에 서있습니다. 수련기간 내내 밝은 얼굴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신 백암 가족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와 주셔서 힘내라고 이야기해주시고, 좋은 말씀과 늦은 저녁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을 찾아 주시며 야식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덕분에 수련생활 내내 의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수련생활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어느덧 처음 백암 병원을 찾았던 때와 같이 코 끝이 시린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4개월 동안 수련사회복지사의 마인드로 환자분들과 소통하며 사회복지사와 인간 김민경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주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성장의 기회의 발판을 제공해주신 이사장님과 사회사업팀 팀장님, 사회사업팀 팀원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련동안 백암정신병원의 따뜻한 품안에서 보다 씩씩하게 지낼 수 있어 마치 막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안에 간직하며 백암병원을 통해 배운 지식과 배움을 잊지 않고 앞으로 정신보건 현장에서 보탬이 되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 김세은

안녕하십니까? 백암정신병원 9기 정신건강수련 사회복지사 김세은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처음 백암정신병원으로 출근하던 날이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봄 날이었는데, 어느덧 날씨가 선선해지고 외투를 찾게 되는 계절이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회생활의 경험이 전혀 없던 제가 정신보건수련사회복지사로서 첫 사회생활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하는 마음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도와주신 많은 직원 분들 덕분에 저에게 1년이라는 생활은 여러 가지를 배우고, 느끼고, 저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환자분들과 함께 한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서 프로그램을 하며 함께 웃기도 하고 면담을 하고 난 뒤 안타까움에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백암정신병원의 환자들이 남겨준 소중한 기억들을 고이 간직하여 병과 증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 곁에서 함께 비를 맞으며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을 통해 세상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수련 첫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직원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일과 공부를 배웠고, 그분들의 배려 덕분에 지금까지 알찬 수련 생활을 하고 수련 막바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밝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직원들이 모여있는 곳. 백암정신병원, 저는 그 곳에서의 진정한 배움을 간직하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서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보려고 합니다.

1년이라는 짧지만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 정예지

안녕하십니까? 백암정신병원 9기 정신건강수련 사회복지사 정예지입니다.

올해 초 겨울에 처음 만나뵈었는데, 다시 백암병원의 테라스가 휴식을 취하는 겨울이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준비하는 시기가 온 듯 합니다. 수련사회복지사로서 처음 백암정신병원에 왔을 때, 모든 것이 생경했고 어리둥절했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제일 열심히 일하는 수련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호기 좋게 외쳤으나, 정작 저의 모습은 “이 곳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시작의 두려움을 한껏 그러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톱니바퀴가 잘 들어 맞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백암정신병원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련하는 모습들을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의 덕분이었습니다. 수련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옆에서 지원사격을 해주신 직원분들이 있었고, 맛있는 간식으로 배 두둑히 채워주신 선생님들이 계셨고, 저의 과정 하나하나를 정성들여 봐주셨던 사회사업팀 선생님들! 덕분에 결코 쉽지 않았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년의 시작은 또 다시 겨울일 터. 어떤 길을 걸어가는 항상 “사회복지”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회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노력이 더 큰 백암을 만듭니다.



원무팀
송인숙



최우수사원 (백암인상)

상기인은 1997년 입사하여 병원 발전을 위해

- 고객 만족을 위한 원무 행정 서비스 제공
- 건전한 진료비 청구 문화 정착
- 담당 직무분야의 업무 개선과 향상에 공헌
-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
- 애사심을 갖고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업무 수행

위와 같이 병원 발전에 타직원의 모범이 되어
제 14회 백암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수사원상



사무국 최동엽

우수사원상



간호팀 오수영

우수사원상



보호팀 피정호

우수사원상



총무팀 김월성

인권상



약제팀 박미란

친절상



간호팀 이지연

제안 우수상



진료팀 이경린

최다 제안상



간호팀 안향임

제안 장려상



총무팀 서정민

제안 장려상



공공사업팀 박수일

백암에서의
비상을
축하합니다.



원무팀 과장 → 차장
박정규



간호팀 계장 → 선임계장
오수영



보호팀 계장 → 선임계장
피정호



간호팀 주임 → 선임주임
안은숙



간호팀 주임 → 선임주임
변성준



간호팀 사원 → 주임
이순영



간호팀 사원 → 주임
김재현



보호팀 사원 → 주임
김태형



총무팀 사원 → 주임
김포성



사무국 사원 → 주임
박인선





기쁜시간입니다

2017년 후원실적

구 분	지 원 금 액 / 품 목	지 원 환 우(명)
입원비 지원	10,050,000원	111명
생필품 지원	1,331,690원 /생활필수품(민간기업 지원 : 770점)	133명

후원명단

내 부
 광유진 김숙화 김영일 김태규 김포성 김현경
 박미란 박성국 박수남 박수일 박연희 박옥련
 박인선 박정규 서정민 송미연 송인숙 안은숙
 안향임 오수영 이경희 이동표 이순영 이인규
 이태석 이효근 장승영 전병관 전희수 정우균
 정태호 조은정 조현우 최동엽 피정호 한광의
 한란숙 한수정 황동욱

외 부
 강정숙 강정원 강채원 권대환 김권웅 김무장 김병구 김예솔
 김은겸 김정한 김현덕 노영애 다린(이경아) 문유진 박경자
 박미리 박순희 박은숙 박준규 박효선 백암공판장(함필화)
 백암알파문구(안미영) 빈스토리 성문인쇄사 신부삼 신정자
 심완기 오영숙 원삼주유소 유영학 육기룡 이병승 이서연 이수찬
 이영주 이은경(김무장) 이주영 이준채 이현지 인수환경(이대근)
 임대희 임영순 장석자 전미현 전인태 전충일(대용부동산) 조경만
 주식회사유리빙 (주)써브.동남 (주)우미기전(김홍구) (주)중앙환
 경엔지니어링 지현미 진만옥 한국중앙교회 황이삭

자원봉사자

개인 김경숙 김미란 김소연 김순자 김인섭 김태석 김효숙 박금주 송경진 심우석 엄은기 엄은정 왕미경
 윤갑수 이명량 이선미 이선희 이양임 이정숙 이지민 임계식 임광옥 전미정 전선희 정승윤 정용미
 정용주 조건수 조미경 한미숙 한예원

단체 3600지구용암로타리클럽경기지사 김혜수 순수애니눔봉사회 예술인협회 용인시문화원합창단
 용인여성합창단 우리가락봉사단 전국트로트가수차밍댄스 투데이신문

※ 후원명단과 자원봉사자는 가나다 순입니다.

물품후원



유케이특판(주) 생활용품 후원



(주)서로가치 생활용품 후원



3600지구 용암로타리클럽 생활용품 후원



용인시 문화원합창단 음료 후원



순수애니눔봉사회 음료 후원



김수일님 간식 후원



조명자님 음료 후원

백암정신병원 후원회 **따온**(따스한 온기)

후원방법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CMS를 통해 후원자님이 약정하신 후원금이 지정하신 통장에서 매월 계좌이체됩니다.

후원자혜택

- 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공제 혜택
- ② 정기 간행물인 백암소식지를 통해 후원자님의 정성을 기록
- ③ 후원해주신 후원금의 사용내용을 후원자님께 발송





2017년 서울시립병원평가 우수기관 선정 (9년연속)

2017년 제1회 정신건강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발행기관 백암정신병원 발행인 박수용
편집위원 정태호 송미연 박미란 조은정 맹순경 이길아 장민혁